

5.28.2026

저희 본부에서 행정간사로 일하다 지난 토요일(23일) 한국에서 결혼을 한 스테이시 차 자매가 신랑과 함께 LA를 방문하여 결혼 축하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신랑이 사는 한국에서 신혼생활을 한 후 GP-USA를 통해 훈련을 받고 아프리카 T국에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부부의 미래를 위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5.18 - 5.21.2026

지난 5월 18일부터 나흘간 뉴욕에 있는 퀸즈 한인교회에서 2026년 제 11차 한인 세계선교대회(KWMC)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 처에서 온 선교사님들과 MK들, 로컬교회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교적 영성을 회복하고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GP 선교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여 재충전, 재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심전력 헌신해 주신 조용증 선교사님과 스태프들, 그리고 뉴욕퀸즈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21-4.23,2026

지난 4월 21 부터 3 일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2026 년 상반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멀리 아프리카 남단에서 열리다 보니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사 네 분과 읍서버 두 분이 참석해서 본부대표의 사역/재정 보고를 받고 회부된 토의안건을 처리 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사역자들을 초대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 현지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허창식 선교사님의 사역현장을 돌아보며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2.2026

4월 초 정기 기도모임에는 지난 2012년부터 NK 관련 사역을 하고 계신 장주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NK 사역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NK 사역의 본질에 대해 통찰력 있는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NK 사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사역의 위험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지속되어야 이유들을 명쾌히 짚어 주셨습니다. 이어서 NK와 그 땅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동포들 위해, 그리고 사선을 넘나들며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와 지하교회 위해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3.5.2026

3월 첫째 주에는 지난 11년간 멕시코에서 청소년/청년 사역과 커피 브레이크 사역을 하고 계신 박기훈/김혜원 선교사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혹독한 고난과 역경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2.27-3.3,2026

그간 본부와 선교관에 공급되는 전압이 낮아서 잦은 정전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드디어 전압 업그레이드 공사가 마무리되어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를 위해 많이 수고해 주신 전기 테크니션 김집사님과 윌리엄권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21,2026

지난 2월 21 일에는 북가주 산호세에 있는 새누리교회에서 금년초 말레이시아에서 공동체훈련을 수료하신 국가의 선교사님의 광역선교사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ETI 를 도구로 지구촌 곳곳을 누비고 다니실 국선교사님의 차기 사역을 기도로 함께 응원합니다.



2.7.2026

지난 2월 7일에는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서형렬/서정희, 오세영/오미숙 선교사님들을 안수하고 파송하는 파송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지난 1월에 말레이시아에서 공동체 훈련을 마치고 이제 사역지 4국으로 떠나시는 네 분의 앞길을 축복하며 기도 하기 위해 이른 새벽인데도 많은 성도님들과 친지들이 오셔서 기도로 물질로 동역할 것을 서약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2.5.2026

지난 2월 5일에 있었던 월례 기도모임에는 오랫동안(44년) 동안 케냐에서 교회개혁, 목회자 훈련, 난민사역을 해오시며 한국 선교를 이끌고 계신 선교계 어른 임종표 선교사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그간의 신앙여정과 사역 그리고 기도제목 등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4-1.30,2026 말레이시아 공동체 훈련

새해 1월 4일부터 한 달간 말레이시아 국제 훈련원에서 미주본부 주관으로 새로 허입된 경력선교사들 대상으로 공동체 훈련이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던 12명의 선교사들이 GP-USA 가족이 되어 함께 동역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고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치셨습니다. 훈련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섬겨 주신 모든 훈련원 스텝과 강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2.2026 신년 하례 시무예배



금년 1월 2일에는 본부 세미나실에서 근처에 계신 이사님과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신년 하례 시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소서 6:23-24 을 본문으로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현종 목사님(디사이플교회)이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함께 자리한 20여명의 지피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계속해서 저희 선교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선교를 이끌며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선교 공동체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비용절감 차원에서 현재 우편으로 영수증을 받고 계신 후원자 분 가운데 이 메일로 영수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GP-USA 사무실 (714-774-9191)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gpfinance@gpusa.org) 로 후원자분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Zelle: 후원자의 은행 앱에서 Zelle 을 통해 저희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를 사용해 송금하시면 됩니다. 메모란에는 반드시 후원하는 선교사의 이름을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email: gpfinance@gpusa.org Tel: 657-538-7096



^Venmo: 뱅모로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란에서 저희 뱅모 아이디를 찾으시면 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메모란에 후원하기 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름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enmo ID: GP-USA Inc (GI) 이메일 주소: gpfinance@gpusa.org

*그동안 많은 분들이 체크나 크레딧 카드 등으로 후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저희 은행 ID 와 계좌번호를 사용해서 ACH 로 손쉽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ROUTING #: 122043602 / ACCOUNT#: 07409881)